

#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TBL) 분석

조우정\* · † 강신범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부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부교수

## Analyses of Sustainability(TBL) of Marine Sport Events

Woo-Jeong Cho\* · † Shin-Beum Kang

\* , † Dept. of Ocean Physical Educa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해양스포츠이벤트 방문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Oh(2003), Park(2009) 그리고 Song and Lee(2005)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요인 및 항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원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해양공간정비(M=3.82)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M=3.4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교통정체(M=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자와 주민 갈등(M=2.73)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경제적(M=3.79), 사회적(M=3.84) 그리고 환경적(M=3.80)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지니스형이 경제적(M=3.22), 사회적(M=3.26) 그리고 환경적(M=3.25)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가 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용어** : 해양스포츠이벤트, 지속가능성, Tripple Bottom Line,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s of sustainability of marine sport events by types of events and thu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that helps developing sustainable marine sport events. In order to accomplish such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survey methodology with a total of 285 visitors to marine sport events.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ased on Tripple Bottom Line theory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 and validated throughout a panel of experts to check out content validit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with Scheffe post hoc tests. Accordingly following findings were derived from current study. First, among 12 positive sustainability variables, marine space improvement had the highest mean score(M=3.82) but creation of jobs had the lowest mean score(M=3.46). Among 11 negative sustainability variables, traffic jam had the highest mean score(M=3.16) but conflict between participants and residents had the lowest mean score(M=2.73). Second, a festival typed marine sport event had the significantly high mean scores in all positive sustainability index including economic sustainability(M=3.79), social sustainability(M=3.84)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M=3.80). Third, a business typed marine sport event had the relatively higher mean scores in all negative sustainability index including economic sustainability(M=3.22), social sustainability(M=3.26)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M=3.25).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rine sport event organizers concentrate on marine sport event with more sustainability potentials.

**Key words** : Marine Sport Event,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ripple Bottom Line

## 1. 서 론

정부의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스포츠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해양스포츠이벤트는 해양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하

위 산업으로서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3대 요트대회 중의 하나인 아메리카스컵 대회는 2006년의 경우 57억 유로의 생산유발효과, 27억 유로의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7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했다(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09). 이러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는 추진 중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생산유발 효과 추정치인 11조 5천억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 연회원, mikecho@hhu.ac.kr 051) 410-4794

† 교신저자 : 연회원, kangsb@hhu.ac.kr 051)410-4791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된 경기도보트쇼 및 국제요트대회는 2008년의 경우 총 3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단기 경제파급효과 967억원 그리고 장기 파급효과 1조원 등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9).

이렇게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가시적 파급효과가 검증되면서 지자체들의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2009)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총 74개의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연안역 및 해양에 인접한 지자체가 해양스포츠산업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양적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경상남도는 세계적 해양스포츠이벤트인 아메리카스컵 대회 유치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09),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광역시도 세계적 요트대회인 불보오션레이스 등 국제요트대회 유치 등을 통한 해양스포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측면은 강조되고 있으나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의 해양스포츠이벤트는 개최하는 지자체 관점에서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환경적 및 사회문화적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접근은 전무하다.

특히,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성패는 수질 등과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뿐 아니라 해양스포츠이벤트가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이벤트를 조직 및 운영하는 지자체와 산업체는 수질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해양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IOC, ISAF 등 국제스포츠조직이 규정하는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우 그러한 규정과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양스포츠이벤트 기획 및 전문가들의 인식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정부, 지자체, 산업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Jennings(2007)는 해양스포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양스포츠는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가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스포츠이벤트는 그 자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기대하는 편익(benefits)을 극대화하고 비용(costs)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Collin et al., 2009; Laing et al., 2010; Yuen, 2007).

이에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2.1 이론적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해함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환경보호와 발전 양자 중에서 어떤 측면에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발전을 통해 삶의 수준을 높이고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이유로 발전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환경을 외면한 발전이 난무해서도 안 된다. 이는 발전과 환경 보존이 통합되어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다양한 산업 및 경제 개발 분야에 적용되었는데 특히 관광개발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Go(2011)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 향상, 방문객에 대한 양질의 관광 경험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와 방문객을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WTO, 199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은 첫째, 방문객의 관광경험의 질, 지역의 삶의 질 그리고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것, 둘째, 관광경험의 질을 만족시키면서 자연자원의 연속성과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 셋째, 관광산업체, 환경보호자 그리고 지역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개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전을 통해 환경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용으로 인한 환경의 훼손, 지역의 갈등 유발 등 일련의 비용 지불은 불가피한 면을 갖고 있다.

한편 Choi and Seo(2012)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지역 발전 분야에 적용했는데 그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 또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불완전한 미래를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2002)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와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표로서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개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Fairley et al.(2010)이 제시한 Tripple Bottom Lines(TBL) 모델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① 경제적 지속가능성

Oh(2003)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중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리고 관광소득의 지역내 재투자 등 긍정적 측면과 지가 상승과 소득의 외부 유출 등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한 Jennings(2007)는 해양스포츠가 지역사회 소득증대 효과, 고용유발효과,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 효과, 사회간접 자본의 증가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 지속가능성 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의 누출 효과, 연구개발비의 증가, 업체간 경쟁 증가, 지역사회의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요인도 공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지진, 물부족, 사막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중 자연 환경의 보호와 생태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Park et al, 2009). 하지만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환경적 측면의 전략을 충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Jennings(2007)는 해양스포츠는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 수질의 중요성 인식 계기, 해양 환경 쟁점의 정치 이슈화 그리고 해양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및 확대 등 환경적으로 긍정적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마린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패턴 및 시스템의 변화, 해양 폐기물 증가 그리고 생태계 교란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지속가능성

Song and Lee(2005)는 지속가능성 지표로서 사회적 적합성을 포함해 지속가능성을 연구했는데,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개발 활동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환대(hospitality)가 창출되는 관광 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yun(2006)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을 평가하면서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개발지역과 기존 지역의 분리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ee and

Cha(2004)는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성 지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사회적 영향과 안전성, 의식의 건전성 그리고 방문객의 만족 등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 2.2 선행연구 분석

Jennings(2007)가 지적하는 것처럼, 해양스포츠는 해양이라는 특정 자연환경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환경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도 그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스포츠분야에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미흡하며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측면, 해양스포츠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참가자와 방문객 등을 유입하는 관광 매체로서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광학 분야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방문객들이 인지하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 분석해 해양스포츠이벤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Choi and Song(2000)은 관광개발이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사회문화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해왔다고 주장하며 관광의 지속가능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첫째, 관광개발은 관광이 기반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보호, 개량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방문 촉진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둘째,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지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관광개발의 이해당사자인 관광객, 관광산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론자들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지와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h(2003)는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보고하고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관광개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광계획, 개발, 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Lee and Cha(2004)는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기존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Moon(2007)은 생태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의 관광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가 활용한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Song and Lee(2005)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서 계량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지속가능성의 부문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관광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기여도, 사회문화적 적합성,

생태적 지탱성, 정치적 지지도 그리고 시장적 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들은 생태계 보전(1순위), 환경감시 및 모니터(2순위), 정책 지지(3순위), 사회문제(4순위), 시장성(5순위), 경쟁력(6순위), 주민 주도 경제(7순위), 경제 편익 분배(8순위), 호의적 태도(9순위), 주민생활(10순위), 참여의사(11순위), 그리고 지역 문화 정체성(12순위) 등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Fairley et al.(2010)은 TBL(Trippl Bottom Line) 모델을 이용하여 호주 포뮬러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첫째,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스포츠이벤트 조직자가 해당 스포츠이벤트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측면은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이해집단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교육,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사회복지 등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재원을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투자한 경우라면 스포츠 분야 투자의 장기적 가치가 타 분야에 투입된 가치를 초과해야만 그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호주 포뮬러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의 경우,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Industry Research와 Victorian Auditor\_General's Office에서 분석한 경제적 과급효과 분석 결과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비재정적인 효과를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게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자긍심, 즐길 거리 제공,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여가기회의 확대 및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 등의 긍정적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분산, 혼잡성과 교통 체증 등의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셋째, 스포츠이벤트 조직자들은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및 사회적 과급효과뿐 아니라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스포츠이벤트의 환경적 측면으로는 공기 오염, 자연자원의 손상 그리고 소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주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가 개최된 Albert Park Land의 경우 기존의 개최지역에 대한 환경법이 있었으나 Australian Grand Prix Act(AGP Act)법을 통해 기존 환경관련법들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더불어 Moesch(2011)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스포츠이벤트 개최시 필수 투자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사후 사용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2003년 세계스키선수권대회 그리고 2006년 FIFA월드컵 등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분석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은 이벤트 개최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의 효과적인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투자가 방송, 안전, 숙박시설, 통신 그리고 교통 등 일반

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편익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관련해 스포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일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Jones(2010)는 이벤트의 유형, 규모 그리고 개최 지역에 따라서 이벤트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데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보다 세분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1년 각종 해양스포츠이벤트의 방문객으로 제한하였다. 해양산업발전협의회(2009)의 분류기준에 따라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로 비즈니스형(49명), 엘리트형(33명), 동호인형(50명), 연계형(53명) 그리고 축제형(99명) 등 총28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지역을 방문해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자와 사전 훈련된 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자	131	46.0
	여자	154	54.0
연령	10대	29	10.2
	20대	111	38.9
	30대	40	14.0
	40대	33	11.6
	50대	46	16.1
	60대	26	9.1
학력	고졸미만	41	14.4
	고졸	68	23.9
	대졸	153	53.7
	대학원이상	23	8.1
월 소득	200만원미만	163	57.2
	201-300만원	54	18.9
	301-400만원	29	10.2
	401-500만원	16	5.6
	501만원이상	23	8.1

####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조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

적 특성 3문항, 경제적 지속가능성 7문항, 사회적 지속가능성 8문항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8문항 등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지표와 측정 항목 들은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해양스포츠 전문가 3인으로부터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 중 인구통계적 특성은 명명척도 그리고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Table 2 The selection of sustainability index and variables

구분	측정 지표	선행연구	
경제적	긍정적 측면	주민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오(2003), Jennings(2007)
	부정적 측면	물가상승, 수익의 유출, 경제활동 방해	오(2003), 이·차(2004)
사회적	긍정적 측면	여가수단제공, 자긍심고취, 삶의 질 개선, 화합과 이해증진	박(2009), 류·이(2012)
	부정적 측면	혼잡과 불편, 교통정체, 일상불편, 주민참가자 갈등	Jennings(2007), 문(2007)
환경적	긍정적 측면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 개선, 해양공간개선	송·이(2005), 정(2002), 김(2007), 조(2010)
	부정적 측면	생활환경파괴, 해양쓰레기유발, 해양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Jennings(2007)

### 3.3 자료 처리

회수된 285부의 유효 설문지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 차이는 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alpha=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4. 결 과

### 4.1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 기술통계 분석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긍정적 측면은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3.46에서 3.82수준에 위치해 있었으며 부정적 측면은 2.73에서 3.16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은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ustainability

구분	항목	M	SD	순위
긍정적 측면	해양 공간정비	3.82	.89	1
	관광산업 활성화	3.82	.87	2
	경제 활성화	3.76	.86	3
	자긍심 고취	3.74	.87	4
	여가활동 기회제공	3.70	.93	5
	해양환경 교육	3.69	.97	6
	삶의 질 개선	3.67	.88	7
	해양환경 개선	3.67	.96	8
	해양환경 보전	3.56	.99	9
	화합과 이해증진	3.53	.97	10
	주민소득 증대	3.47	.95	11
부정적 측면	고용창출	3.46	.93	12
	교통 정체	3.16	1.00	1
	지역물가 상승	3.15	.95	2
	수익의 역외 유출	3.13	.89	3
	해양쓰레기 발생	3.09	1.12	4
	혼잡과 불편	3.08	1.02	5
	해양수질 오염	3.00	1.18	6
	일상생활 불편	2.96	1.06	7
	해양생태계 파괴	2.91	1.08	8
	생활환경 파괴	2.88	1.10	9
	경제활동 침해	2.75	.99	10
참가자와 주민 갈등	2.73	1.06	11	

### 4.2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차이 분석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벤트 유형별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주민소득증대, 관광활성화,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득 증대 항목에서는 축제형(M=3.59, SD=.95)과 동호인형(M=3.53, SD=.93)이 연계형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인식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3.524, p=.008), 관광활성화 항목에서는 축제형(M=4.0, SD=.71)과 동호인형(M=3.90, SD=.84)이 연계형보다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666, p=.000). 고용창출 항목에서는 비즈니스형(M=3.59, SD=.82)과 축제형(M=3.58, SD=.90)이 연계형(M=3.06, SD=.93)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2.993, p=.019) 경제활성화 항목에서는 축제형(M=3.92, SD=.80)이 다른 모든 이벤트유형보다 인지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3.96, p=.004).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물가상승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물가상승에서 비즈니스형

Table 4 ANOVA of economic sustainability by types of events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	
긍정적 측면	주민 소득 증대	비즈니스형	49	3.41	1.86	3.524	.008	e,c>d
		엘리트형	33	3.35	1.19			
		동호인형	50	3.53	.93			
		연계형	53	2.94	.90			
		축제형	99	3.59	.95			
	관광 활성 화	비즈니스형	49	3.55	1.02	7.666	.000	e,c>d
		엘리트형	33	3.52	1.12			
		동호인형	50	3.90	.84			
		연계형	53	3.24	.96			
		축제형	99	4.0	.711			
	고용 창출	비즈니스형	49	3.59	.82	2.993	.019	a,e>d
		엘리트형	33	3.22	1.12			
		동호인형	50	3.33	.84			
		연계형	53	3.06	.93			
		축제형	99	3.58	.90			
	경제 활성 화	비즈니스형	49	3.55	.73	3.968	.004	e>a,b .c,d
		엘리트형	33	3.52	.99			
		동호인형	50	3.63	.76			
		연계형	53	3.42	1.02			
		축제형	99	3.92	.80			
합계	비즈니스형	49	3.59	.62	5.406	.000	e>c,d	
	엘리트형	33	3.43	.96				
	동호인형	50	3.60	.68				
	연계형	53	3.20	.87				
	축제형	99	3.79	.68				
부정적 측면	물가 상승	비즈니스형	49	3.31	.93	3.372	.010	a,e>b
		엘리트형	33	2.52	.84			
		동호인형	50	3.00	1.01			
		연계형	53	3.12	.78			
		축제형	99	3.24	.95			
	수익 의역 외유 출	비즈니스형	49	3.34	.76	.781	.538	
		엘리트형	33	2.91	.66			
		동호인형	50	3.10	1.12			
		연계형	53	3.09	.76			
		축제형	99	3.14	.91			
	경제 활동 방해	비즈니스형	49	3.03	.90	.806	.552	
		엘리트형	33	2.61	.94			
		동호인형	50	2.63	.92			
		연계형	53	2.76	.83			
		축제형	99	2.75	1.05			
	합계	비즈니스형	49	3.22	.72	1.771	.135	
		엘리트형	33	2.68	.69			
		동호인형	50	2.91	.89			
		연계형	53	2.98	.61			
		축제형	99	3.04	.81			

Note. a=비즈니스형, b=엘리트형, c=동호인형, d=연계형, e=축제형

(M=3.31, SD=.93)과 축제형(M=3.24, SD=.95)이 엘리트형(M=2.54, SD=.84)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3.372, p=.010). 수익의 역외 유출 항목에서는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방해 항목에서도 비즈니스형이 타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도는 없었다.

#### 4.3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차이 분석

긍정적 측면에서 이벤트 유형별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5에 나타난 것처럼, 여가수단 제공, 자긍심 고취, 삶의 질 개선, 그리고 화합과 이해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가수단 제공 항목에서는 축제형(M=3.82, SD=.92), 비즈니스형(M=3.76, SD=.91), 동호인형(M=3.60, SD=.89)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엘리트형(M=3.48, SD=.84)과 연계형(M=3.30, SD=1.01)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갖고 있었으며 자긍심 고취 항목에서는 축제형(M=3.86, SD=.81)과 비즈니스형(M=3.79, SD=.81)이 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보다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45, p=.029). 삶의 질 개선 부문에서는 동호인형(M=3.83, SD=1.02), 축제형(M=3.78, SD=.84), 비즈니스형(M=3.69, SD=.64)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엘리트형(M=3.40, SD=1.02), 연계형(M=3.27, SD=.91)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3.301, p=.012) 화합과 이해 항목에서는 축제형(M=3.73, SD=.89)이 타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00, p=.001).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는 혼잡과 불편, 교통정체, 일상불편, 주민 및 참가자 갈등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혼잡과 불편 항목에서는 비즈니스형(M=3.38, SD=.86)과 연계형(M=3.36, SD=.82)이 타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정체 항목에서도 비즈니스형(M=3.38, SD=.90)과 연계형(M=3.27, SD=.83)이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불편 항목에서는 비즈니스형(M=3.28, SD=.92)이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및 참가자 갈등 항목에서도 비즈니스형(M=3.14, SD=.78)이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4 해양스포츠이벤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이 분석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이벤트 유형별 해양스포츠이벤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6에 나타난 것처럼,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개선 그리고 해양공간정비 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보전 항목에서는 축제형(M=3.75, SD=.93)이 엘리트형(M=3.17, SD=1.11), 동호인형(M=3.27,

Table 5 ANOVA of social sustainability by types of events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	
긍정적 측면	여가수단제공	비즈니스형	49	3.76	.91	2.715	.030	e,a,c>b,c
		엘리트형	33	3.48	.84			
		동호인형	50	3.60	.89			
		연계형	53	3.30	1.01			
		축제형	99	3.82	.92			
	자극심고취	비즈니스형	49	3.79	.81	2.745	.029	a,e>b,c,d
		엘리트형	33	3.52	.99			
		동호인형	50	3.50	1.00			
		연계형	53	3.45	.95			
	삶의질개선	비즈니스형	49	3.69	.64	3.301	.012	c,e,a>b,d
		엘리트형	33	3.40	1.02			
		동호인형	50	3.83	1.03			
		연계형	53	3.27	.91			
	화합과이해	비즈니스형	49	3.41	.97	4.900	.001	d>a,b,c,e
		엘리트형	33	3.22	1.12			
		동호인형	50	3.20	.99			
		연계형	53	3.15	.97			
	합계	비즈니스형	49	3.66	.60	5.030	.001	e>d
		엘리트형	33	3.52	.83			
		동호인형	50	3.47	.78			
연계형		53	3.34	.76				
부정적 측면	혼잡과불편	비즈니스형	49	3.38	.86	2.122	.078	
		엘리트형	33	2.78	.99			
		동호인형	50	2.87	1.19			
		연계형	53	3.36	.82			
	교통정체	비즈니스형	49	3.38	.90	1.499	.203	
		엘리트형	33	2.83	1.07			
		동호인형	50	2.97	1.06			
		연계형	53	3.27	.83			
	일상불편	비즈니스형	49	3.28	.92	1.381	.241	
		엘리트형	33	2.61	.94			
		동호인형	50	2.80	1.09			
		연계형	53	2.94	.102			
	주민참가자갈등	비즈니스형	49	3.14	.78	1.485	.207	
		엘리트형	33	2.74	.96			
		동호인형	50	2.60	1.02			
		연계형	53	2.67	.89			
	합계	비즈니스형	49	3.26	.70	1.725	.145	
		엘리트형	33	2.73	.72			
		동호인형	50	2.70	.97			
		연계형	53	3.00	.65			

Note. a=비즈니스형, b=엘리트형, c=동호인형, d=연계형, e=축제형

Table 6 ANOVA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types of events

구분		N	M	SD	F	p	사후검증	
긍정적 측면	해양환경보전	비즈니스형	49	3.45	.94	4.419	.002	e>b,c,d
		엘리트형	33	3.17	1.11			
		동호인형	50	3.27	1.12			
		연계형	53	3.21	.92			
		축제형	99	3.75	.93			
	해양환경교육	비즈니스형	49	3.72	.92	3.983	.004	e,d,a>b
		엘리트형	33	3.15	1.13			
		동호인형	50	3.47	.90			
		연계형	53	3.74	1.14			
	해양환경개선	비즈니스형	49	3.69	.93	2.706	.031	e>b
		엘리트형	33	3.24	1.03			
		동호인형	50	3.50	.86			
		연계형	53	3.61	1.14			
	해양공간정비	비즈니스형	49	3.72	.92	3.372	.010	e>b,c
		엘리트형	33	3.48	1.16			
		동호인형	50	3.48	.74			
		연계형	53	3.73	.97			
	합계	비즈니스형	49	3.63	.76	4.146	.003	e>b,c,d
		엘리트형	33	3.47	.88			
		동호인형	50	3.44	.74			
연계형		53	3.27	.86				
부정적 측면	생활환경파괴	비즈니스형	49	3.07	.96	1.069	.372	
		엘리트형	33	2.78	.95			
		동호인형	50	2.67	.99			
		연계형	53	3.15	.97			
	해양쓰레기유발	비즈니스형	49	3.21	.97	.768	.547	
		엘리트형	33	2.96	.97			
		동호인형	50	2.97	1.12			
		연계형	53	3.36	.99			
	해양수질오염	비즈니스형	49	3.38	1.05	1.624	.168	
		엘리트형	33	2.83	.93			
		동호인형	50	2.87	1.13			
		연계형	53	3.24	1.11			
	해양생태계파괴	비즈니스형	49	3.38	.94	2.588	.037	a,d>b,c,e
		엘리트형	33	2.65	1.02			
		동호인형	50	2.73	1.08			
		연계형	53	3.18	.95			
	합계	비즈니스형	49	3.25	.87	1.634	.166	
		엘리트형	33	2.80	.81			
		동호인형	50	2.80	1.02			
		연계형	53	3.23	.92			

Note. a=비즈니스형, b=엘리트형, c=동호인형, d=연계형, e=축제형

SD=1.12), 연계형(M=3.21, SD=.92)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4.419, p=.002) 해양환경교육 항목에서는 축제형(M=3.83, SD=.89), 연계형(M=3.74, SD=1.14), 비즈니스형(M=3.69, SD=.93)이 엘리트형(M=3.15, SD=1.13)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83, p=.004). 한편 해양환경개선 항목에서는 축제형(M=3.80, SD=.91)이 엘리트형(M=3.24, SD=1.03)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706, p=.031) 해양공간정비 항목에서는 축제형(M=3.96, SD=.83)이 동호인형(M=3.48, SD=.74)과 엘리트형(M=3.48, SD=1.16) 해양스포츠이벤트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72, p=.010).

한편, 부정적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과피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양생태계과피 항목에서 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2.588, p=.037). 생활환경과피 항목에서는 연계형(M=3.15, SD=.97)이 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쓰레기 유발 항목에서는 연계형(M=3.36, SD=.99)과 비즈니스형(M=3.21, SD=.97)이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질 오염 항목에서는 비즈니스형(M=3.38, SD=1.05)과 연계형(M=3.24, SD=1.11)이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관점 모두에서 분석한 결과,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에서는 해양 공간 및 시설 정비(M=3.8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M=3.82), 지역 경제 활성화(M=3.82) 그리고 자긍심 고취(M=3.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스포츠가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아이템이라고 한 Cho(2010)의 주장을 잘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지표 중에서 해양공간 및 시설 정비 항목에 대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해양스포츠의 활동공간이 수변공간과 마리나 등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의미해 준다(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5점 Likert 척도에서 '보통이다'와 '그렇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해양스포츠이벤트의 부정적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개최지 교통 정체 유발(M=3.16), 지역사회 물가 상승(M=3.15), 개최 수익 및 효과의 역외 유출(M=3.13)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 발생(M=3.09), 개최지역의 혼잡 및 불편 초래(M=3.0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스포츠와 관련 산업을 '녹색성장' 산업으로 규

정해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해양스포츠이벤트 그 자체가 지속가능한 개발 아이템은 아니며 개발 주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개최지역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이벤트 개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의 부정적 측면 또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해양스포츠이벤트는 비즈니스형, 엘리트형, 동호인형, 연계형, 그리고 축제형 이벤트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는 이벤트의 유형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Jones(2010)의 주장에 기초해 지속가능성 수준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4개 측정 지표 중에서 주민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 항목 등 3개에서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대표적이다. 이 대회는 개최지역에 지역 홍보효과뿐 아니라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방문객들이 개최지역을 방문해 지역의 다양한 관광산업 분야에서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Cho, 2011; Cho and Kang, 2011). 한편, 고용창출 항목에서는 축제형과 비즈니스형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에서 개최된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인 경기국제보트쇼와 경남의 대한민국보트쇼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9).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이벤트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 중에서 여가수단 제공, 자긍심 고취, 화합과 이해 증진 등 3개 항목에서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 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중에서 삶의 질 개선 항목에서는 동호인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양스포츠이벤트가 동호인형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호인형 해양스포츠이벤트는 보다 체험적, 능동적 그리고 활동적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여가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스포츠, 해양스포츠 관련산업 그리



고 긍정적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해양스포츠이벤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이벤트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모두에서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개최되고 있는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는 그 대상이 개최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을 모두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여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Jennings, 2007). 물론 본 연구에서 측정 지표로 사용한 항목들처럼 해양환경교육 및 해양공간 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Jennings(2007)가 제시한 것처럼 해양스포츠 유형에 따라서 해양 환경 및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해양스포츠이벤트 뿐 아니라 해양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벤트 및 축제에 대한 환경, 생태학적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Oh(2003)가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개발과 산업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긍정적 측면에서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평가했다. 먼저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유형별 부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지속가능성 지표 모두에서 비즈니스형의 부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는 대부분 요트 또는 보트쇼로서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그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대국민 또는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은 미디어를 통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지역사회의 물가상승 유발, 수익의 역외유출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활동 침체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 선도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벤트 유형별 해양스포츠이벤트의 부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모든 측정 지표에서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객, 관람객 등의 수가 특정한 이벤트 개최기간에 집중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혼잡과 불편 초래, 교통정체, 지역주민의 일상 불편 그리고 지역주민과 참가자간 갈등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수준과 비교해 부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수준이 낮아 전반적으로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보통이다'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

단되나 해양스포츠이벤트가 하나의 산업으로서뿐 아니라 관련 해양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벤트 개최지 주민과 방문객들의 지지와 협조라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부정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4개 측정 항목 중에서 해양생태계 파괴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즈니스형 해양스포츠이벤트의 해양생태계파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육상 및 해상 공간에서 특정 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개최지역을 방문하고 해양환경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이벤트 이해당사자인 방문객이 인식하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을 이벤트 유형별로 그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로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기능적 유형에 초점을 분석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규모와 해양스포츠 종목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종목, 이벤트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근거로 해양스포츠이벤트 기획 및 운영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후 기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2-G00072).

## 참 고 문 헌

- [1] Ahn, B. Y., Lee, B. K. and Shafer, C. S.(2002), "Operationalizing sustainability in regional tourism planning: an application of the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Vol. 23, pp. 1-15.
- [2] Ayala, H.(1995), "Ecoresort: a green masterplan for the international resort industry", *Int. J. Hospitality Management*, Vol. 14, No. 3, pp. 351-374.
- [3] Byun, C. H.(2006), "Evaluation of national projects on sustainability criteria", *Space and Society*, Vol. 26, pp. 120-153.
- [4] Collins, A., Jones, C. and Munday, M.(2009),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mega sporting events: Two options?", *Tourism Management*, Vol. 30, pp. 828-837.

- [5] Cho, W. J.(2010),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rine sport industry", Korea Marine Engineering Society, Vol. 34, No. 2, pp. 224-234.
- [6] Cho, W. J.(2011), "The economic impacts of marine sport events using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 Leisure Studies, Vol. 43, pp. 327-336.
- [7] Cho, W. J.(2011), "The effects of a marine leisure exhibition event's appraisal attributes on visitors'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5, No. 4, pp. 335-342.
- [8] Cho, W. J. and Kang, S. B.(2011), "Analyses of economic impacts of marine leisure events", Korean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5, No. 5, pp. 415-421.
- [9] Choi, B. G. and Song, J. H.(2000), "A study on sustainability structures and concepts of tourism", Tourism Policy Research, Vol. 3, pp. 231-266.
- [10] Dolnicar, S. and Leisch, F.(2008). "Selective marketing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29, pp. 672-680.
- [11] Fairley, S., Tyler, D., Kellett, P., and D'Elia(2010), "The formula one Australian Grand Prix: Exploring the tripple bottom line", Sport Management Review, Vol. 77, pp. 1-12.
- [12]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09), 2009 Gyeonggi International Boat Show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 Research Report.
- [13]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2009), America's Cup challenging plan for Gyeongnam Yacht Hub. Research Report.
- [14] Jennings. G.(2007), "Water-based tourism, sport, leisure and recreation experiences", Oxford, UK: Elsevier Inc.
- [15] Kim, J. D.(2007), "Strategies for tourism governance for regional governments through a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Research Journal, Vol. 21, No. 3, pp. 391-407.
- [16] Kim, J. H.(2002), "A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eign Law Journal, Vol. 12, pp. 195-230.
- [17] Ko, G. S.(2011),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rough sustainable marine tourism", Marine Business, Vol. 18, pp. 1-25.
- [18] Ko, J. T. G. (2001), "Assessing progress of tourism sustainabil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8, No. 3, pp. 817-820.
- [19] 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2009), A study on activation strategies for marine sport events. Research Report.
- [20] Laing, J. and Frost, W.(2010), "How green was my festival: Explor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staging green events", Int. J. Hospitality Management, Vol. 29, pp. 261-267.
- [21] Lee, H. Y. and Cha, S. H.(2004), "Application of sustainable tourism standards on tourism sites' characteristics", Korea Tourism Society 55th Congress, pp. 441-450.
- [22] Moesch, C.(2011), "Sustainability of mega sports events - Subsequent use of event infrastructure as a key factor", 2011 EASM Conference, p. 29.
- [23] Oh, J. J.(2003),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eco tourism resource", Korea Geographic Society, Vol., 38, No.
- [24] Park, Y. S., Glenn, J. and Gorden, T.(2009), State of the Future. Seoul: Kyobo Books. 4, pp. 610-629.
- [25] Ryu, J. S. and Lee, J. D.(2012), "An evaluation model for Upo's sustainability as an eco tourism resource",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Vol. 11, No. 1, pp. 3-25.
- [26] Song, J. H. and Lee, S. E.(2005), "Tourism sustainability: a case fro Jeju", Tourism Research, Vol. 19, No. 2, pp. 193-211.
- [27] UNEP(2006), "Mainstreaming the environment in major sports events", Global Forum for Sport and Environment Report.
- [28] Williams, P. and Ponsford, I.(2009), "Confronting tourism's environmental paradox: transitioning for sustainable tourism", Futures, Vol. 41, pp. 396-404.

---

원고접수일 :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26일

원고채택일 : 2013년 01월 30일